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457>

JCCT 2023-1-55

드라마 <수리남>에 나타난 남성 인물들의 디아스포라 현상과 의미

Diaspora phenomenon and meaning of male characters in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유재응*, 이현경**

Jae-eung Yoo*, Hyun-Kyung Lee**

요약 윤종빈 감독의 드라마 <수리남>은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스트리밍 되어 드라마 순위 1위에 올랐다. <수리남>은 윤종빈 감독이 이전부터 추구해 온 한국사회 남성 서사의 계보를 잇고 있다. <수리남>에서 주인공들은 한국 사회를 벗어나 타국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디아스포라 행보를 선택한다. <수리남>의 두 남성 주인공은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돈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1980~90년대 한국사회의 공적 권력의 횡포를 피해 디아스포라를 선택했지만, 수리남은 사적 폭력과 공적 권력이 유착된 최악의 장소였다. 거기서 한 명은 마약왕이 되고, 한 명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 상이한 둘의 선택은 디아스포라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종빈 감독은 <수리남>에서 ‘가족’과 ‘폭력’이라는 기존 작품들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자신이 탐구해 온 한국 남성 서사의 지리적 영역을 확장시켰다.

주요어 : <수리남>, 윤종빈, 디아스포라, 넷플릭스, 버디 필름

Abstract Director Yoon Jong-bin's new series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was streamed through Netflix in 2022 and ranked first in the series rankings.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continues the genealogy of male narratives in Korean society that director Yoon Jong-bin has pursued for a long time. In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the main characters choose the path of the diaspora to escape Korean society and seek survival in a foreign country. The two male protagonists of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are set up in a hostile relationship, but they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basically pursue money to “survive”. They chose the diaspora to avoid the tyranny of public power in Korean society in the 1980s and 1990s, but Republic of Suriname was the worst place where private violence and public power were completely callused. In there, one becomes a drug lord and the other chooses to act for his duty to Korea. These two different choices can be said to be examples of the light and shade of the diaspora. In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director Yoon Jong-bin inherited the themes of 'family' and 'violence' from previous works, while expanding the geographical area of Korean male narratives he had been exploring.

Key words :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Yoon Jong-bin, diaspora, Netflix, buddy film

*정회원,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제1저자)

**정회원, 영화평론가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December 30,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muninare@empas.com

I. 서론

윤종빈 감독의 신작 드라마 <수리남>은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스트리밍 되어 드라마 순위 1위에 올랐다. 윤종빈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으로, 최근 다수의 감독들이 OTT 드라마 연출을 맡고 있는 추세에 발맞춘 행보라 할 수 있다. <도가니>, <남한산성>의 황동혁 감독이 2021년 연출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흥행하자 다수의 영화감독들이 OTT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사랑니>, <해피엔드>의 정지우 감독은 <쌈바디>, <장화, 홍련>,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은 <닥터 브레인>,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은 <카지노>를 연출했다.

저예산 졸업 작품 <용서받지 못한 자>(2005)로 큰 주목을 받으며 윤종빈 감독은 등장했다. 현재까지 총 5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국사회 속 남성이라는 일관된 화두에 초점을 두고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군인, 사회초년생을 다루었던 <용서받지 못한 자>(2005), <비스티 보이즈>(2008)에 이어지는 다음 세 편은 '역사'라는 거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남성서사를 구축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 국면에서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는 1980~9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조폭과 정치권의 야합과 지하경제의 이면을 세밀히 살피고 있다. 웨스턴 형식을 차용한 독특한 사극 <군도: 민란의 시대>(2015)는 조선 철종 시대를 배경으로 간악한 탐관오리에 맞서는 의적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다. <공작>(2018)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암호명 '흑금성'으로 활동했던 안기부 공작원의 실화를 통해 분단 현실의 본질을 짚어보는 작품이다.[1]

영화에서 드라마로 매체를 옮겼지만 <수리남>은 윤종빈 감독이 이전부터 추구해 온 한국사회 남성 서사의 계보를 잇고 있다. 전작 <공작>에서는 공간적 배경이 베이징과 평양으로 확대되었는데, <수리남>에서는 지구 반대쪽 남미의 작은 나라 '수리남'으로 공간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그의 영화에서 처음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가 등장했다는 의미이다. 디아스포라는 본래 이스라엘 땅을 떠나 타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모국을 떠나 타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 그룹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다.[2] 따라서 이산 혹은 분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이주민, 난민, 망명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디아스포라를 이산과 이주민이라는 두 가지 뜻을 다 함의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수리남>의 두 남성 주인공은 한국에 머무를 수 없는 사연 때문에 수리남으로 간 인물들이다. 돈을 버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 명은 돈을 버는 이유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한 명은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만큼 둘은 상이한 선택을 한다. 이 두 주인공의 삶의 궤적과 가치관을 비교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남성 유형들 중 명암이 엇갈리는 두 가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수리남>의 두 남성 주인공들의 디아스포라 원인이 무엇인지, 디아스포라로서 그들의 정체성은 어떤 성격인지 분석한 다음, <수리남>이 윤종빈 감독의 영화세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디아스포라의 원인 : 공적 권력의 횡포

<수리남>은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리남에서 '마약왕'으로 불린 조봉행이라는 인물을 검거하기 위해 국정원을 도운 민간인의 활약은 실제 사건이며, 영화는 이를 토대로 각색을 했다. 실화의 골간만 차용하고 상당 부분은 영화적 픽션이 더해졌다. 조봉행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집으로 가는 길>(방은진, 2013)이라는 영화도 있었다. 한국인 여행객의 집에 마약을 숨겨 밀수를 한 사건을 다룬 것이었다. <수리남>의 주인공 강인구(하정우)는 1968년생으로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의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한다.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군인으로 5년을 보낸 후 다리 장애를 안고 귀국한 다음날부터 일을 하였다. 어머니 역시 새벽부터 허드렛일을 했지만 인구의 부모는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들었다. 인구의 어머니는 그가 14살 때 야쿠르트를 배달을 하던 중 겨울 새벽길에서 사망했다. 이후 인구 아버지는 하루 4시간 자면서 6년 동안 레미콘을 운전했지만 결국 졸음운전으로 사망한다. 인구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하였는지

깨닫는다. 엄청난 “삶의 무게”가 울음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구는 낮에는 소요산에 막걸리를 지고 올라가 판매하고, 밤에는 단란주점에서 웨이터 일을 한다. 그의 삶에 희망이라는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부터이다. 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로소 여유가 생긴 인구는 대출이 반이지만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 <수리남>에는 가요가 두 곡 등장하는데 하나가 인구네 이사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윤수일의 ‘아파트’이다. 1982년 발표된 이곡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대표적 거주지가 아파트로 변해가는 시대상을 보여준다. 카센터, 미군부대 식자재 납품, 단란주점까지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인구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는 적당히 뇌물도 주고 로비도 하면서 사업 수완을 발휘한다. 그러나 어느 날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해 버린 인구는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한다. 20년 선원 생활을 한 친구 응봉이 제안한 흥어 사업을 하기 위해 단란주점을 처분해 수리남으로 간다.

<수리남>의 또 다른 주인공 전요한(황정민)은 강인구에 비해 구체적인 성장배경이 설명되지 않지만, 대사를 통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강인구와 전요한의 결정적인 차이는 ‘가족’이라는 배경에 있다. 강인구는 부모와 형제, 아내와 자식이라는 가족 관계 안에 존재하는 인물이고 전요한은 그런 가족관계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전요한의 사연은 1990년 인천에서 시작된다. 마약운반책이던 전요한은 조직이 검거될 때 혼자 하수도로 14킬로를 걸어 도주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때 빼돌린 필로폰은 이후 그의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요한은 건설 투자 사기꾼으로 변모하는데 시행도 되지 않을 가짜 리조트 건설 사업에 투자자를 모은다. 투자자들은 사기인 줄 알게 되기도 신고하지 않는데 이는 교묘하게 투자자들을 필로폰 중독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약점을 잡아 신고도 하지 못하게 덮을 놓는 치밀함을 보인다. 그러나 덜미가 잡힌 전요한은 안기부 취조실에 끌려가 호된 고문을 당하다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난다. 몇 년이 지나서 전요한은 목사로 변신한 후 또다시 필로폰을 이용해 신도들을 유인하고 교세를 급격히 확산시킨다. 그러나 안기부에서 만난 검사는 귀신 같이 그를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 요구가 점점 심해지자 전요한은 검사를 살해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남미의 작은 나라 수리남으로 도망간다.

영화 시작과 함께 강인구의 내레이션으로 수리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브라질 위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50만이고, 국토의 절반이 밀림이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마약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라는 내용이다. 수리남은 인구 44만의 인구 소국이지만, 인종과 언어 그리고 종교에 있어 매우 복잡한 구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종족들은 수리남에 건너온 지 수백 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0종 이상의 언어가 일상 공용어로 사용된다. 네덜란드어와 수리남 크레올어인 스라난 통가(Sranang Tongo)가 공용어이며, 힌두어, 자바어, 중국어 등이 각 종족의 가정 내에서 일상 언어로 쓰인다. 주변 강대국인 브라질의 영향으로 포르투갈어와 영어 등도 통용된다.[3]



그림 1. 수리남 지도
 Figure 1. Suriname Map



그림 2. <수리남>의 코카인 농장
 Figure 2. A cocaine farm in the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이러한 수리남의 특성은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경비가 불가능한 밀림지역의 특성을 이용해 마약

거래를 하며, 대서양에 접한 지리적 요건을 살려 유럽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창구가 수리남이다. 전요한과 세력 싸움을 벌이는 중국계 조직 두목 첸진(장첸)은 차이 나타운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중국어를 사용하고 휘귀와 백주 등 중국음식을 먹는 모습이 그려진다. 수리남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들은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도로 부패한 나라 수리남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텔라노 대통령은 전요한에게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는 대가로 콜롬비아 코카인 유통 독점권을 준다. 전요한은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 궁을 드나들고 필요하면 군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1960~80년대 성장기를 보내고 1980~90년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강인구나 전요한에게 한국 사회는 가혹하고 냉정했을 것이다. 전요한의 범죄 행위에 비하면 강인구는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강인구도 결코 순탄한 사회생활을 했을 거 같지 않다. 이런저런 불법과 탈법도 저지르면서 사업을 이어왔을 테지만 법의 처벌을 받는 정도는 아니었다. 적당히 비리도 수완으로 사용하는 강인구와 악독한 범죄자 전요한이 한국을 떠나 낯선 수리남까지 갈 수 밖에 없던 까닭은 한국 사회의 공권력이 행사하는 폭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전요한이 파렴치하고 잔악한 범죄자라 해도 그를 착취하는 공권력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윤종빈 감독은 줄곧 사적 폭력과 공적 권력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층위는 다르지만 강인구나 전요한은 한국 사회의 공적 권력의 횡포를 피해 수리남으로 건너갔으면서 그곳의 공적 권력을 마치 사적 권력처럼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2.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 : ‘버디’와 ‘언더커버’

윤종빈 감독의 영화는 첫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부터 남성 주인공 커플이 대립, 갈등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군대 선임과 후임(<용서받지 못한 자>), 호스트 마담과 호스트 선수(<비스티 보이즈>), 조폭 브레인과 행동대장(<범죄와의 전쟁>), 양반집 서자와 천민 백정(<군도>), 남북한 공작원(<공작>) 등 그의 작품은 남녀 관계보다는 남성 인물끼리 부딪히며 서사를 끌어간다는 특징이 있다. 즉, ‘버디 필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버디 필름은 두 남성 주인공 사이의 우정에 중점을 두는 영화로, <내일을 향해 쏴라>(1969), <스팅>(1973)은

이 장르의 상징이다. 이런 영화에서 여성은 남성 주인공들의 주변에 머문다.[4]

<수리남>의 강인구와 전요한은 <공작>의 남북 공작원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한 관계 속에 놓여있다. <공작>의 남북 공작원 리명환(이성민)과 박석영(황정민)은 공적인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충되는 입장이 있기 하나 각자의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태도를 취한다.[5] 그렇게 볼 때, 리명환과 박석영은 대립보다는 이해와 화해를 나누는 관계이다. 이에 반해 강인구와 전요한은 표면적으로 협력하지만 이면의 실상은 철저한 대립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강인구와 전요한이 서로를 생각하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의심이 많고 절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전요한은 강인구에게 점차 마음을 열고 동업 제안까지 한다. 정권의 비호 아래 전요한은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는 방대한 밀림을 개간하여 코카인을 재배하고 있다. 현재는 남미 최대의 코카인 생산국 콜롬비아의 국제적 조직으로부터 코카인을 공급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하기 위한 포석이다. 아무도 위치를 모르는 코카인 농장을 강인구에게 보여주고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까지 준 것이다.



그림 3. <수리남>의 강인구와 전요한
Figure 3. Kang In Gu and Jeon Yo Hwan in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잔인하고 비열한 전요한이지만 강인구에게는 다소 너그러운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사업을 제안한 것도

그렇지만 야구광인 자신의 애장품 박찬호 싸인볼을 행운의 부적이라며 강인구에게 건네기도 한다. 앞에서 <수리남>에는 가요 두 곡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아파트> 외 한 곡은 조용필의 ‘꿈’이다. ‘아파트’가 1980년대 강인구의 꿈을 상징하는 노래라면, ‘꿈’은 1990년대 수리남이라는 이국에 정착한 전요한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노래다. 전요한은 강인구를 여러 차례 의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의 말을 믿어 준다. 수리남이라는 먼 타국에서 돈과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은 공허해 보인다. 전요한 같은 냉혈한에게도 ‘꿈의 가사처럼 화려한 도시를 찾아왔지만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회의하는 내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강인구를 자기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로 동료로 곁에 두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전요한의 곁에는 수족처럼 부리는 수하들과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여자들이 있을 뿐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 영화의 말미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국정원 최 차장이 강인구의 카센터에 찾아온다. 보상금 문제를 상의하러 온 것인데 돌아가기 직전 최 차장은 교도소에 있는 전요한의 말을 전해준다. 전요한은 강인구에게 돌려받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박찬호 싸인볼이다. 강인구는 그것 역시 가져라고 생각했는데 전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진품이라고 말한다. 그 말의 진위 역시 알 수는 없지만 전요한은 강인구와의 멋진 버디 무비를 꿈꾸었던 것 같다. 전요한은 강인구와 ‘버디’를 꿈꾸었지만 강인구는 철저한 ‘언더 커버’라는 점에서 둘은 어긋났다.

강인구는 순수하게 흥어 사업을 위해 수리남에 갔다가 전요한의 술수에 말려들어 재산을 다 잃고 교도소 갇힌다. 이때 국정원 직원 최창호가 접근하여 강인구에게 언더 커버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전요한을 설득해 미국령에 마약을 들여놓게 하려는 작전이다. 미국령에서 마약이 발각되면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수리남에 있는 전요한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천만한 작전이지만 강인구는 돈 때문에 수락한다. 작전에 성공하면 자신이 수리남에서 잃은 전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멀고 먼 타국의 감옥에 갇혀서도 한국의 아내에게 전셋집 돈은 절대 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강인구는 자신의 가족을 절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는 가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는 인물이다. ‘돈’에 대한 집념과 추구는 전요한이나 강인구 둘 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돈’을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다. 강인구에게 돈은 가족을 살리고 행복을 지키는 수단이지만 전요한은 돈 자체가 종교적 신념인 인물이다. 전요한이 강인구를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으로 착각한 것이 그의 실패 원인이다.



그림 4. <수리남>의 최창호와 변기태
Figure 4. Choi Chang Ho and Byeon Ki Tae in <The Accidental Narco, Narco-Saints>

<수리남>에는 모든 인물이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다. 국정원 미주 지부장 최창호(박혜수)는 전요한에게 접근하기 위해 구상만이라는 사업가로 위장한다. 전요한의 오른팔 변기태(조우진)은 일찌감치 조직에 스며든 진짜 ‘언더 커버’이다. 이들은 전요한에게 접근하기 위해 본래의 말투나 의상과는 판판인 모습으로 변신한다. 윤종빈 감독의 전작들에서 줄곧 보여 왔던 버디 필름의 특성이 <수리남>에서는 한 인물 안에 있는 상반된 두 자아로 진화되었다는 느낌이다. 영화의 핵심 인물인 전요한, 강인구, 최창호, 변기태는 모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응수, 첸진, 데이빗은 단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이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비약이지만, 윤종빈 감독은 한국 남성의 생존에는 이중 자아라는 정체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III. 결 론

데뷔작부터 한국 남성 서사를 탐구해 온 윤종빈 감독은 이제 지리적 배경을 넓혀 남미의 수리남이라는 국가로

배경을 옮겼다. <수리남>의 주인공인 두 한국 남성은 1980~90년대 한국 사회에서 공적 권력의 횡포를 겪은 후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된다. 평범한 소시민이든 악랄한 범죄자이든 공권력의 폭력은 한국 남성을 디아스포라로 내몰았다. 이들은 1980~90년대 한국 사회의 공적 권력의 횡포를 피해 디아스포라를 선택했지만, 수리남은 사적 폭력과 공적 권력이 철저히 유착된 곳이었다. 거기서 한 명은 마약왕이 되고, 한 명은 한국의 국익을 위한 행동을 선택한다. 상이한 둘의 행보는 디아스포라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종빈 감독은 <수리남>에서 ‘가족’과 ‘폭력’이라는 기존 작품들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자신이 탐구해 온 한국 남성 서사의 지리적 영역을 확장시켰다.

References

- [1] k.w.kim et al, Korean Film Directors1, Lemon de korea, p.202, 2020
- [2] Seoung-Yun Shin, A Study on Etymological Implications of Biblical Hebrew in the Jewish Diaspora and Aliyah, Korean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43, no.1, pp. 131-154,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ern Studies, 2022
- [3] The Popular Music Culture of the Republic of Suriname : Independence, Postcolonialism, Kaseko, Journal of Korean Music and Culture, no.6, pp.5-24, The Society of Korean Music Culture, 2017.
- [4] Susan Heyward, Cinema Studies, Hannarae, p.171, 2012.
- [5] Jaeung, Yoo, Representation of Male Character and Cinematic Space in 2000s Korean Division Films - Focusing on the <Joint Security Area>, <Secret Reunion>, <The Spy Gone North>,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no.19-3, pp.213 - 222,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

※ 본 연구는 2022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